해양수산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25.(수)

황종우 해수부 장관,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취항 축하

-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로 불법 조업 대응 및 안전 조업 지원 역량 강화
- 어업지도선의 빈틈없는 지도·단속과 승선 직원의 안전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5일(수) 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열린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취항식에 참석해 새로운 어업지도선의 취항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무궁화10호는 지난 27년간 서해에서 외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과 우리 어업인의 안전 조업 지원 등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 온 국가어업지도선이다. 이번에 새롭게 취항하는 무궁화10호는 기존의 노후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규모와 성능을 대폭 개선하여 변화하는 어업관리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선박의 규모는 499톤에서 1,001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악천후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도입하여 연료비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황 장관은 격려사에서 “기후 변화와 수산 자원 감소,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어업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가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새롭게 취항하는 무궁화10호가 향상된 성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불법 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노후 국가 어업지도선의 적기 대체 건조와 첨단 단속 장비 확충, 관계기관 간 공조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51-773-5560)
		담당자	사무관	오병훈 (051-773-55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